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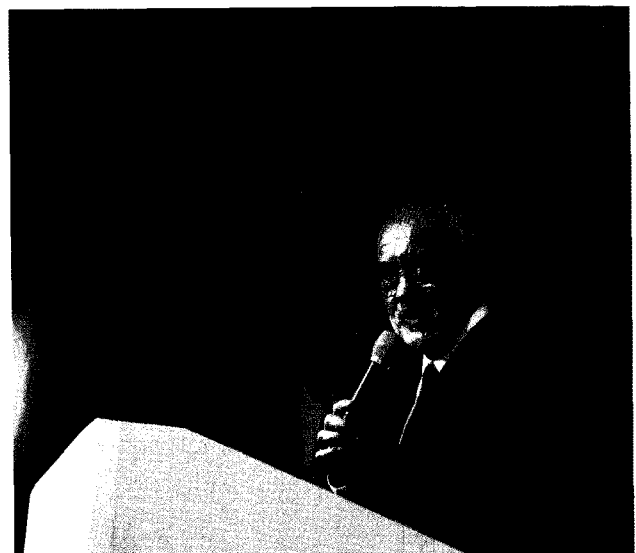
HP, 디스콥 아시아 및 프린트어워드 개최 1000여명 내한 ... 디지털인쇄 세미나 및 키펀스 참관도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은 지난 9월 7일~8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2010 디스콥 아시아(Dscoop Asia 2010)'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 HP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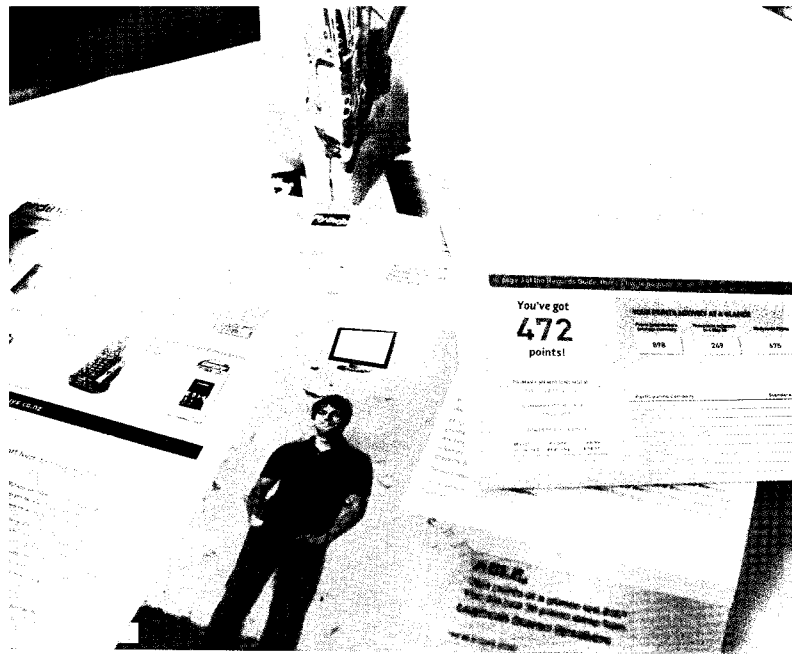
인디고 사용자들의 교육과 체험, 업계 교류를 위한 독립커뮤니티인 Dscoop(Digital Solutions Cooperative)은 그동안 미국에서만 개최되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천여명의 HP 인디고 디지털인쇄기 고객사가 참여했다.

디지털인쇄에 대해 논의한 디스콥아시아

이날 행사에는 인디고의 설립자이자 발명가인 베니 랜다(Benny Landa)씨가 내한해 '디지털프린팅의 역사 및 발전'에



인디고 발명가인 베니 랜다



1. HP인디고 디지털인쇄기를 제작한 다양한 DM인쇄물
2. 발표를 하고 있는 미래인의 홍성표씨
3. 디지털인쇄에 대해 토의를 하고 있는 해외 패널들
4. 포토북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리나라의 아비즈

대해 소개했다. 베니 랜다는 “초기 디지털 프린팅 시장은 관철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수익성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점목되면서, 지금은 훌륭한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0년전 처음 개발된 인디고는 꾸준한 발전을 거듭한 끝에 HP와 손잡고 디지털 오프셋 인쇄시장을 이끌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인쇄는 아날로그를 벗어나 디지털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존 솔로몬 HP 아태 및 일본 지역 이미징 프린팅 그룹 부사장은 “인쇄산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지금이 디지털 출력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분야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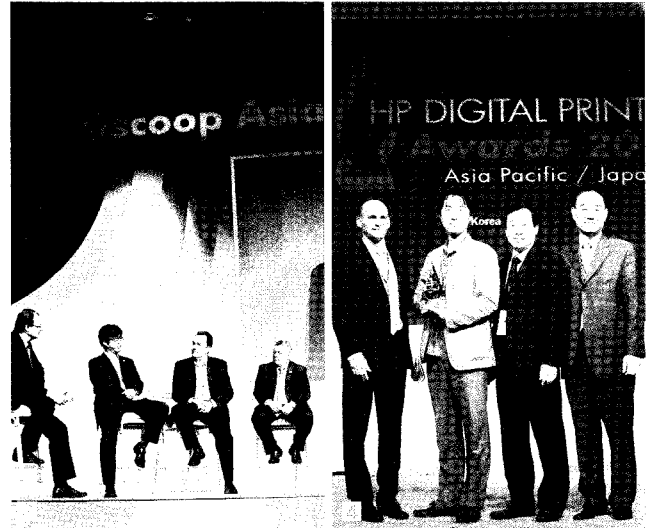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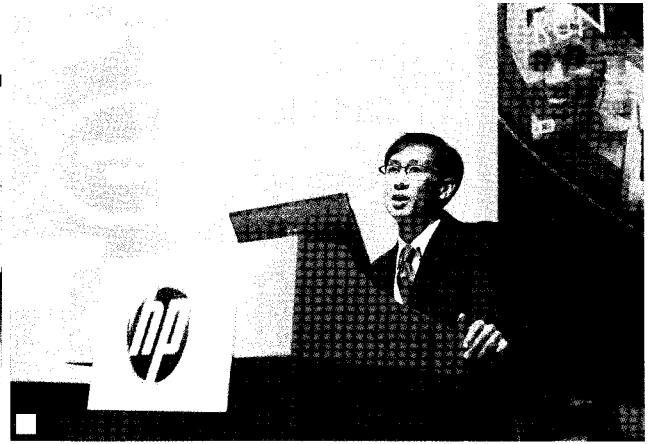
이후 일본과 미국 현지의 인디고 도입사 관계자인 랜디 바이스(Randy Bice)씨, 스티븐 브라운(Steven Brown)씨, 유키노리 오카모토(Yukinori Okamoto)씨가 패널로 나와 ‘왜 디지털인가’라는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디지털 오프셋 인쇄 도입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점심식사 후 이어진 미디어 미팅에서는 디비텍의 신기환 대표, 콜드로지(cold logic)의 커비 베스트(Kirby Best)씨, 크리스 플렉시팩스(kris flexipacks)의 비레쉬(viresh sheth)씨, 미래엔의 홍성표씨가 자신의 회사에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인쇄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내년 2011 디스콥 아시아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 HP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

본 시상식에는 총 14개국 800여명의 참가자들이 자리를 함



께 했으며 전체 18개 부문에서 350개 이상의 작품이 후보에 올랐다.

총 부문별 전체 대상은 키사 퍼블리싱(Kisah Publishing)이 수상했다.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이 회사는 혁신성 및 창의성, 마케팅 효과, 효과적인 디지털 기술 사용, 용지 선택, 효과적인 잉크 및 컬러 사용, 마감 처리 및 포장 등 전체적인 미학 부문을 인정받아 ‘최고의 책 및 매뉴얼상(Best Book and Manual)’도 수상했다.

우리나라 업체는 한국학술정보가 이벤트 및 캠페인부문에서, 아비즈(ABYZ Co)가 포토북부문에서 수상했다.

퍼블리시스 싱가포르의 알렉스 림(Alex Lim)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출품작들은 굉장히 생생하고 선명했다. 또, 일관된 컬러를 자랑하는 진정한 예술작이었으며 살아있는 듯 했다. HP 인디고 장비를 이용해 출력됐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작들은 2010년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2010 국제인쇄산업전시회’의 HP 전시관에도 전시되었다. G